



스페셜 추천 레스토랑 색다른 맛과 멋이 감도는 곳

특별한 외식을 원할 때 시간을 들여 찾아가 볼만한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식사에 있어서도 남다른 미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적극 추천한 명소 두 곳. 먼저 SMC&C 송경애 대표의 추천명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접시 위에 그림처럼 담아내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사로잡는 '시·화·담'.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안내한 아르헨티나에 온 듯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다.

진행 이윤지 기자 | 사진 양우영 · 최별 기자



'엄전에 훑날리는 바람, 꽃소금을 그릇에 담다'. 한국의 신안 토판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개발한 메뉴로 궁중에서 임금님이 애프터이저로 즐기던 대하젓짬뽕채를 화가 마티스의 강렬한 색을 가진 채소를 사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먹기 좋도록 스푼에 담아 모던함을 더했다.



송경애 SMC&C 대표

SMC&C 송경애 대표가 추천하는 시·화·담
 “한국적인 스토리가 담긴 음식으로,
 다음 메뉴가 기대되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평소 한식을 즐겨 먹는다는 송경애 대표는 시와 그림, 이야기가 맛있게 담긴 공간인 시·화·담에서 자주 미팅을 갖는다. 전통적인 멋과 우리 고유의 맛, 현대적인 감성이 세련된 조화를 이루어 외국인들도 한식문화를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VIP를 초대하거나 소규모 MICE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찾는 곳이다.



1

- 1 진품 고가구와 민화, 토기와 도자기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인사동 시·화·담 내부
- 2 시·화·담의 시그니처 메뉴, '코리아 런치박스'. 쫄깃하고 달콤한 중편 사이에 채소와 불고기를 넣은 한국식 샌드위치. 종이와 먹, 벼루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팅이 독특하다.
- 3 돼지고기구이와 부추요리 '밀이 익어 가는 풍경'. 대지의 한 장면을 점사에 옮겼다. 뜨거운 태양 아래 들들 사이로 피어난 꽃을 그린 한복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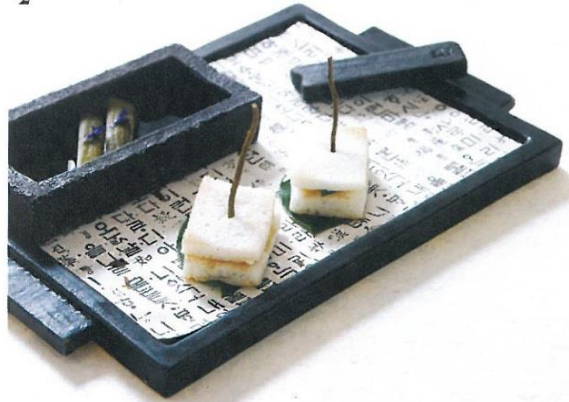
3

시·화·담의 미학적 플레이팅

한정식의 모던한 해석이 돋보이는 시·화·담의 모든 메뉴들은 각각 한 편의 시를 연상케 하는 서정적인 테마로 꾸며진다. 제철 최상의 재료로 계절마다 다른 정취의 '시와 그림을 담은 향기로운 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전통의 고매한 향기와 현대의 분위기를 담은 특별한 미식 공간이다.

시·화·담 인사동점

주 소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132~133층
 문 의 02-738-8855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2